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19. 1. 16.(목) 총 5매(본문4, 붙임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(도시경제과)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이수민, 주무관 문병운• ☎ (044) 201-4842, 3738	
보도일시		2020년 1월 1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17(금) 6:00 이후 보도 가능		

스마트시티 속도낸다…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

- 17일부터 기존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공모사업 착수-

- ◆ 올해 총 18곳을 선정, 262억원 규모로 스마트솔루션 구축 착수
- ◆ 기존 도시단위 대규모 스마트시티 챌린지('19), 마을단위 중규모 테마형 특화단지('18)에 더해 '20년은 개별 솔루션 구축사업 신설
- ◆ 3개 사업을 2020년부터 「스마트챌린지 사업」으로 통합·운영
- ◆ 1.17일부터 약 80일 간 공모 진행…4월 말 최종 사업지 선정

< 스마트챌린지 개편방향 >

범위		규모		예산		지역		수혜	
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
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
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	<input type="checkbox"/>	

- 2020년부터 기업·시민·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, 만들어가는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「스마트챌린지 사업」을 새롭게 출범하고, 이달 17일부터 공모에 착수한다.
-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('19년)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('18년)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·개편한 사업으로,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.
-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^(大)시티-^(中)타운-^(小)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, 사업 범위,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하였으며,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[대규모] 시티 챌린지

- 시티 챌린지는 대·중소기업,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,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.
- * (예) 도시전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모든 이동 과정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 도입
-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, 첫해는 민간·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하여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(15억 원/곳)하고,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 원(지방비 50% 매칭)의 본사업을 지원한다.
-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·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(규제 샌드박스)*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.
- * 스마트도시법에 신설된 제도('20.2.27 시행)로, 시티챌린지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(위원장 국토부장관) 심의를 거쳐 일괄 해소

② [중규모] 타운 챌린지

□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 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.

* (예) 공업단지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구축

-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, 1년차에 4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(3억 원/곳)을 지원하고,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 원(지방비 매칭 50%)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.
-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, 타운 챌린지는 생활 편의,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③ [소규모] 솔루션 챌린지

□ 솔루션 챌린지는 대·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, 스마트 횡단보도,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·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.

- 이 사업은 시티·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,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,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 원(지방비 50% 매칭)을 투입하고,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 하도록 지원한다.

□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1.17일부터 4.3일까지 약 80일 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, 시티·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(서면→발표)를,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(서면)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,

○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(smartcity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한편,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(6곳), 2기 타운(4곳)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*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,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다.

* (시티) 부천·수원·창원·광주·대전·인천, (타운) 통영·공주부여·서울성동구·부산수영구

□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“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·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,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, 기업·시민·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,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수민사무관(☎ 044-201-4842) 또는 문병운 주무관(☎ 044-201-37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 스마트챌린지 사업

기존도시가 **스마트시티**로 탈바꿈됩니다

Smart
Challenge

기업·시민·지자체가 함께 기존도시를 스마트화하기 위해, 기존 공모사업과 신규 공모사업을 통합 개편 후 2020년부터 새롭게 출범한 사업으로, ^(대)시티 - ^(중)타운 - ^(소)솔루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유형별로 지원규모, 사업 범위 등을 차별화하여 추진

개편방향



2020 스마트챌린지

City 챌린지

대규모

민간기업의 아이디어로
도시전역의 문제해결을 위한
종합솔루션 구축

신청주체 지자체 + 민간 컨소시엄

대상지역 광역, 기초 (시·군)

지원규모

예비사업 4곳 (15억/곳)

본 사업 1곳 내외
(3년 300억 내외/곳, 지방비 1:1매칭)



기업과 함께 만드는
혁신적 스마트시티

Town 챌린지

중규모

리빙랩 등
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
도시 내 일정구역 수요에
최적·특화된 솔루션 발굴·접목

신청주체 지자체

대상지역 광역, 기초 (시·군·구)

지원규모

예비사업 4곳 (3억/곳)

본 사업 3곳 내외
(40억 내외/곳, 지방비 1:1매칭)



시민이 직접 참여하는
지역특화 스마트시티

Solution 챌린지

소규모

대중규모 사업 추진이
어려운 곳을 중심으로
시민 생활과 밀접한
단일 솔루션 구축

신청주체 지자체 + 민간 컨소시엄

대상지역 기초 (시·군·구)

지원규모

예비사업 -

본 사업 10곳
(6억/곳, 지방비 1:1매칭)



모두가 바로 체감하는
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